

‘파친코’ 윤여정 “제 아들 때문에 이런 얘기에 끌리나봐요”

오는 25일 공개...애플TV+ 드라마 ‘파친코’서 선자 역
코고나다 감독 “그의 얼굴은 한국 역사가 담긴 지도”

영화 ‘미나리’로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75)이 새 작품으로 돌아온다. 이번엔 영화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드라마를 선보인다.

오는 25일 공개 예정인 애플TV+의 새 시리즈 ‘파친코’다.

윤여정은 이번 작품에서 ‘선자’ 역을 맡았다.

‘파친코’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아우르며 시대적 비극에 휩쓸리고 운명적 사건에 치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는다. 윤여정이 연기한 선자는 이 가족의 약 70년 세월을 모두 버텨내고 이제 노년을 보내는 인물이다. 윤여정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어떤 세계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선자라는 인물의 아픔을 특유의 절절한 감정 연기로 되살린다.

18일 윤여정을 비롯한 ‘파친코’ 출연진과 스태프가 참석한 기자 간담회와 개별 인터뷰가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동 연출자 중 한 명인 코고나다 감독은 윤여정의 연기에 대해 “그의 얼굴은 한국 역사가 담긴 지도였다”며 “모든 장면에서 윤여정의 섬세한 연기에 감탄했다”고 극찬했다. 그러자 윤여정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농담으로 받아냈다.

흥미로운 건 윤여정이 ‘미나리’에 이어 선택한 ‘파친코’ 역시 이민자 얘기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미나리’는 미국에 정착하려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고, ‘파친코’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다.

넷플이자면 2017년에 출간된 원작 동명 소설을 쓴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이고, 공동 연출자인 코고나다와 저스틴 썬 감독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다. 또 각본을 쓴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수 휴, 또 한 명의 총괄 프로듀서인 테레사 강 로우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다. 출연 배우 중에도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 있고, 실제 자이니치도 있다. 말하자면 ‘파친코’는 한국인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한국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실제 그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윤여정은 “내 아들 때문에 자주 이런 이야기에 끌린다”고 했다. 윤여정은 1974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고 9년을 살았다.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면서 미국인이 아닌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런 소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 전 미국에서 이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인종차별 같은 거 모르고 살았죠.

근데 내 아들 세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네 나이의 애들은 그런 걸 느껴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마치 국제 교자 같아요. ‘미나리’ 때도 아이작(한국계 미국인) 감독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걸(‘미나리’)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 프로젝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네가 다 우리 아들이랑 다 같은 시츄에이션이니까... ‘파친코’가 인터내셔널 프로젝트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할 건 아니에요.”

코고나다 감독은 “한국인 가족 이야기이고 한국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보는 모든 시청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며 “어느 가족이나 선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 휴 총괄 프로듀서 역시 “내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헌사. 또 우리 모두의 가족사에 존재하지만 잊혀 가던 모든 선자에게 바치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여정이 ‘미나리’에 이어 ‘파친코’를 택하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연기 무대를 세계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윤여정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난 여전히 똑같은 친구와 놀고 똑같은 집에 산다”며 윤여정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제가 만약에 아카데미까지, 요카테미지를 30대나 40대에 받았으면 뽕뽕 떠다녔을 거예요. 물론 상을 받을 땐 기쁘죠. 근데 상이 절 변화시키진 않아요. 난 그냥 나로 살다가 죽는 거니까. 스티븐 연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너 상 안 탄 게 잘한 거라고요. 그 나이에 후보에 오른 것으로도 영광인 거라고요. 그거 다 운이요. 그냥 운이었어요. 정말 운이었더니깐요.”



차승원·이정은, 달콤쌉싸름 중년케미 “어디부터 거짓말이야?”



배우 차승원과 이정은이 달콤 쌉싸름한 중년의 케미를 선보인다.

tvN 새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5번째 에피소드 티저 주인공인 차승원과 이정은이 중년의 로맨스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20년 만

‘스물다섯 스물하나’ 후속 다음달 9일 방영

에 만난 고향 친구로 등장해 물어둔 청춘의 추억을 떠올리는 중년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영상은 제주로 돌아온 첫사랑 최한수(차승원)와 재회한 정은희(이정은)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완벽한 도시 사람이 되어 돌아온 한수에게는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하다. 반짝반짝 빛났던 어린 시절과 돈을 벌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현재 그의 모습이 교차되고, 한수의 눈은 먹먹히 젖어간다. 한수는 “그때 난 어떤 애였어? 지금처럼 재미없고 딱딱한 모습은 아니었어?”라며 은희에게 씩씩하게 묻는다.

은희는 첫사랑 한수를 만나 향기 났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맞는다. 제주에서 생선가게 장사를 하는 은희의 삶은 늘 생선처럼 비리고 고됐다. 은희는 한수에게 “널 만나니 까맣게 잊어버렸던 청춘의 꿈 얘기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아련한 추억을 곱씹던 두 사람 사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활력 넘치는 시창

속 초라하게 서 있는 한수의 공허한 얼굴이 화면에 담기고, 은희는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야?”라고 차갑게 말한다. 차승원은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이고, 고향 친구로 재회한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던 것인지 궁금증을 더해준다.

제작진은 “차승원과 이정은의 연기 시너지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며 “두 사람은 답답한 현실에 지쳐 있는 모습부터 옛 청춘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은 모습까지 삶을 몰입도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들의 블루스’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제주에서 차고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하는 드라마다.

노회경 작가가 각본을 썼고, 김규태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tvN 토일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후속으로 4월9일 방영된다.

‘식스센스3’, 시즌 최고 시청률로 출발...3.5%



tvN 육감 현혹 버라이어티 ‘식스센스3’(연출 정철민, 신정민)가 시즌 최고 시청률로 출발했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

면, 전일 방송된 ‘식스센스3’ 1회 시청률이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5%를 기록했다.

2020년 시즌 1 최고 시청률은 3.3%, 2021년 시즌 2 최고 시청률은 3.4%였다. 각각 시즌의 1회 시청률은 3.2%와 2.7%였다.

이날 시즌3 첫 방송에서는 송은이, 윤찬영이 게스트로 나섰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생 역전, 기상천외한 식재료, 특별한 만남 중 가짜를 찾아 나섰다.

멤버들은 최종적으로 스파이는 윤찬영, 가짜는 VIP 결혼 정보 회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짜는 가상 화폐 투자자였고, 스파이는 이상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멤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작진은 “조용히 멤버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가짜를 의심하는 멤버를 스파이로 몰아가는 이상업의 활약은 감탄을 자아내며 다음 스파이의 활약에 기대를 높였다”고 소개했다.

‘식스센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40분에 방송된다.

“시즌2 기대”...오젝, 美크리틱스초이스 슈퍼어워즈 3관왕

이정재·정호연, 액션 시리즈 부문 남·여 연기상 수상 등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이 미국 크리틱스초이스 슈퍼 어워즈 3관왕을 차지했다.

오징어게임은 17일(현지시간) 크리틱스초이스 협회(CCA)가 주최한 ‘제2회 크리틱스 초이스 슈퍼 어워즈’에서 액션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폭스 ‘9-1-1’, 넷플릭스 ‘코브라 카이’, 스타즈 ‘힐스’, CWTV ‘쿵푸’, 넷플릭스 ‘워팬’ 등을 제치고 수상 영예를 안았다. 황동혁 감독은 “세계 시청자뿐만 아니라 비평가들도 이 작품을 좋아해서 영광”이라며 “너 좋은 시리즈를 만들라는 응원의 의미로 이 상을 받겠다”고 전했다.

주연인 이정재와 정호연은 액션 시리즈 부문 남·여 연기상을 받았다.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을 찍을 때 액션 장면이 굉장히 어렵고 재미도 있었다. 이렇게 상까지 줘서 뜻 깊고 감사하다”면서 “시즌2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정

호연은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 오징어 게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한 발 한 발 나아가 멋진 배우로 성장하겠다”고 했다.

오징어게임은 상금 456억원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지난해 9월23일부터 11월7일까지 46일간 넷플릭스 TV 쇼 부문 세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제31회 고섬 어워즈’에서 ‘획기적인 시리즈-40분 이상 장편’ 부문을 차지했다. ‘오일남’ 역의 오영수(78)는 지난 1월 한국인 최초로 제79회 골든 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오징어게임은 지난 14일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정재가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차지해 2관왕에 올랐다. 이



정재는 미국배우조합상(SAG),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등에서도 주연상을 받았다. 정호연도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주연상 영예를 안았다.

크리틱스초이스 슈퍼 어워즈는 CCA가 지난해 제정한 시상식이다. 공상과학(SF), 슈퍼히어로, 판타지, 공포, 액션 장르 영화·드라마를 대상으로 대중에게 사랑 받은 작품과 배우를 선정한다.

진성, “3세 때 혼자...50대엔 혈액암 투병”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아픈 과거’ 공개

가수 진성이 아픈 과거를 털어냈다. 진성은 18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코로나 이후 무대가 어색하고 우울하다. 노래를 3일만 해도 무대가 어색하다”고 했다.

이어 “울적하다는 생각은 항상 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이렇다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했다.

진성은 “제가 세 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다.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6~7살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걸 깨달았다”며 불우했던 어린시절을 회상 했다.

그는 “외삼촌이 어머니를 데리러 오셨는데 나를 데리고 가라고 매달렸던 기억이 있다. 외삼촌이 신발로 내 가슴을 치고 진흙바닥에 넘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는 부모들이 원수들이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아픔을 전했다.

또 “건강이 썩 좋지 않다. 50대 중반에 림프종 혈액암을 만났다. 거기에 심장판막증까지



왔다. 항암 치료를 6차까지 받고 운동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한 때는 포기 상태가 돼서 근육이 빠져서 걷기도 힘든 상황까지 됐다. 그때 마음으로부터 준비를 한 적이 있다. 이승서 생은 끝나겠구나 생각했다”라고 과거를 떠올렸다.

이에 오은영 정신건강의학 박사는 “우울과 불안도 진성의 인생 그 자체. 열심히 살아온 진성의 인생은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하다”고 격려했다.